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and the Self-Differentiation
of Parents and Child on th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정경연(Kyoung Yeon Joung)¹⁾

심혜숙(Hae Sook Sim)²⁾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620 5th and 6th grade children in Pusan City and their parents. Both parents completed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 : Skowron & Friedlander, 1998). Children completed the DSI, the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Bray et al., 1984), and the Youth Self-Report (Archenbach, 1991). These measure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adapted for children and parents; their validity was established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of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s showed no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ren's self-differentiation or between parents' self-differentiation total and children's level of problem behaviors. However,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and Children's Self-Differentiation influence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of problem behavior

Key Words :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세대간 가족관계(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아동의 문제행동(children's problem behaviors).

I. 서 론

오늘날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적응과 왕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2005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역학조사

* 2007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임.

¹⁾ 부암초등학교 교사

²⁾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e Sook Sim,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un-dong, Geumjung-gu, Pusan 609-735, Korea
E-mail : sim0585@hanmail.net

에 따르면, 서울시내 19개 초·중·고교 2664명 중 불안장애와 기분장애가 각각 25.1%, 4%를 차지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684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한 반의 약 15%인 평균 4-6명이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보고 하였다(PD수첩, 2006. 4. 11; 동아일보, 2006. 4. 10).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확대가족체계 치료자인 Bowen(1976)은 자녀의 신체적·행동적 증상은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녀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분화 수준이 높아야 하며 부모의 분화수준은 자녀의 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wen(1976)은 개인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주요한 개념으로 자아분화를 제시하였다. 자아분화는 Bowen(1988, 2005)의 가족체계이론 중 핵심적 개념으로 가족체계 속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과 정서체계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제석봉, 1989). 따라서 가족체계의 중요 기능중의 하나는 개인의 분화발달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체계로부터 분화가 잘 된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원가족에게 융합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여 역기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김정택·심혜숙, 1992;

Archer & Waterman, 1988; Bowen, 1978).

Bowen(1978)은 자아분화는 개인의 증상과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분화 수준과 적대감, 우울, 편집증, 정신증, 강박증, 공포/불안, 우울 등 역기능적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권미영, 1993; 김보현, 1999; 이혜숙, 1992; 정미란, 1994; 제석봉, 1989; Skowron & Friedlander, 1998; Tuason & Friedlander, 2000).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무부(2007)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점차 심각해지며 비행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을 현행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한국교육신문. 1. 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가족체계 속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아야 하며 부모-자녀관계가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아야 한다.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적응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Kerr & Bowen, 1988, 2005). 따라서 Bowen(1976)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 분화수준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부모의 분화 수준은 세대간 가족관계를 통해 자녀에게 전수된다고 하였다.

세대간 전수과정은 다세대 가족관계에 기초한 부모-자녀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연진(2002)은 원가족에서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이 많으

며, 부모(父母)의 원가족 분화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가 낮은 부모는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허용 또는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 Cummings, 1994;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앞의 연구들은 부모의 지각에 의한 부모의 자아분화를 바탕으로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의 전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각각의 자아분화 보고를 통한 자아분화의 세대간 전수에 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부모-자녀가 실제 어떤 형태의 가족관계를 통해 세대간 전수를 하는지에 대한 보고와 그 관계가 자녀의 자아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세대 전수과정에서 부모 자녀가 어떤 형태의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연구는 Bowen 이론가인 Williamson(1981, 1982)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가족체계 내의 부모-자녀의 위계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가 부모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개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패턴을 세분화하여 세대간 친밀, 세대간 간섭, 세대간 삼각관계, 세대간 융합-개별화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관계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대간 친밀과 세대간 삼각관계는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kowron, Holmes, & Sabatelli, 2003). 또한 이러한 세대간 가족관계 패턴은 개인의 역기능적인 증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세대간 융합과 세대간 간섭, 세대간 삼각관계는 불안과 관련이 있었으며(Larson & Wilson, 1998), 인지적으로 무능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대학생은 세대간 융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chstrom & Hotle, 1995).

또한, 부모와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자아분화와 자녀의 자아분화,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연구 결과들 또한 차이가 있다. Tuason과 Friedland(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아분화는 자녀의 자아분화와 관련성이 없었으며 자녀의 증상과도 관련성이 없었지만, Peleg(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조영경(1999)이 여고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모의 자아분화와 자녀의 증상과는 관련성이 없어 Peleg(2005)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영경(1999)의 연구는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하위체계인 모녀시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서연석(1999)은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아분화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모(母)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서연석(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을 바탕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역시 부모가 보고하고 있어 부모 자녀를 함께 연구한 교차적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와 모,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모 자녀가 직접 자신들의 자아분화를 보고하는 것을 기초로 한 부모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의 관계 및 부모 자녀간 세대간 가족관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부, 모 자아분화, 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하는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 자아분화,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간 가족관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분화와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모 각 62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가, 나, 다 학교 급지에 따라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각 급지 별로 2곳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620부를 배부하였고 아동과 그 부모가 모두 조사에 참여해야하는 연구특성에 따라 무응답의 빈도가 없는 부모-자녀 506쌍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 5,6학년 총 26개 학급의 아동 620명과 그들의 부

2. 측정도구

1) 아동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의 자기보고형 K-YSR(Korean Youth Self-Report)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빈도	%	변 인	빈도	%
아동 학년			아동 성별		
5학년	244	48.2	남	250	49.4
6학년	262	51.8	여	256	50.6
합 계	506	100	합 계	506	100
부(父) 연령			모(母) 연령		
30-35세	0	0	30-35세	11	2.2
36-40세	72	14.4	36-40세	225	44.5
41-45세	225	44.5	41-45세	166	32.8
46세 이상	125	24.7	46세 이상	36	7.1
무 응 답	83	16.4	무 응 답	68	13.4
합 계	506	100	합 계	506	100
부(父) 학력			모(母) 학력		
무 학	0	0	무 학	2	0.4
국 졸	7	1.4	국 졸	4	0.8
중 졸	25	4.9	중 졸	32	6.3
고 졸	173	34.2	고 졸	245	48.4
대졸이상	286	56.5	대졸이상	221	43.7
무 응 답	15	3.9	무 응 답	2	0.4
합 계	506	100	합 계	506	100

을 사용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 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 척도는 총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과 자해/정체감 문항을 제외한 8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을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사회적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행 11문항과 공격성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문제행동은 사회적 미성숙 8문항, 사고의 문제 7문항, 주의집중 문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YSR의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93 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신뢰도 계수는 내재화문제 .88, 외현화 문제 .83, 사회적 위축 .69, 신체증상 .71, 우울/불안 .86, 사회적 미성숙 .63, 사고의 문제 .64, 주의집중 문제 .68, 비행 .59, 공격성 .82로 나타났다.

2) 부모 자아분화

부모 자아분화 척도는 Skowron과 Friedlander가 1998년에 개발하고 Skowron과 Schumit가 2003년에 보완한 DSI(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 이하 DSI)를 연구자가 변안하여 상담심리 박사학위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부모 자아분화 척도는 예비검사를 통해 46개의 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4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자아분화 척도의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은 11문항으로 한 개인이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 정서적

으로 반응하는 경향의 정도와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나-위치(I-Postion)는 10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와 타인의 압력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이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12문항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부인 등을 반영한다. 이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단절의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은 11문항으로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분화의 대인 관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 있어서 개입된 정도, 부모를 동일시하는 정도 즉 부모의 가치나 신념 또는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 등을 타진한다. 이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4개의 하위요인들을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점수를 역점 처리하여 나-위치와 합을 구해 다시 평균을 구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4개의 하위요인과 자아분화 총합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Skowron와 Schmit(2003)가 25-65세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하위요인별로 정서적 반응성 .89, 나-위치 .81, 정서적 단절 .84, 타인과의 융합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정서적 반응성 .80, 나-위치 .68, 정서적 단절 .73, 타인과의 융합 .7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2였다.

3) 아동 자아분화

아동 자아분화 척도는 Skowron과 Friedlander가 1998년에 개발하고 Skowron과 Schumit가 2003년에 보완한 DSI를 본 연구자가 아동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성인용으로 변안한 DSI를 상담심리 박사학위 전문가 2인과, 상담심리학 석사인 초등학교 교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용어나 문항의 이해도를 재조정하였다. 아동 자아분화 척도는 예비검사를 통해 46개의 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4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예비검사에서 삭제된 문항과 본 검사에서 측정하는 각 하위요인과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부모 자아분화 검사와 동일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반응성 .81, 나-위치 .71, 정서적 단절 .74, 타인과의 융합 .72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4) 세대간 가족관계

세대간 가족관계는 Bray, Williamson과 Harvey가 1984년 개발한 PAFS를 바탕으로 Bray와 Harvey가 1992년에 개발한 PAFS-C(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가족관계의 상호작용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 PAFS-C의 7개 하위요인 중 가족 안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세대간 가족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 47개의 문항 중 예비검사를 통해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한 4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변안하여 상담심리 박사학위 전문가 2인과 상담심리학 석사인 초등학교 교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어나 문항의 이해도가 아동에게 적절하도록 재조정하였다.

세대간 가족관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세대간 친밀(Intergenerational Intimacy)은 23문항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친밀한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세대간 간섭(Intergenerational Intimidation)은 8문항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간섭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간섭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세대간 삼각관계(Intergenerational Triangulation)는 8문항으로 가족 내에 부적절한 연합이나 가족 문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관여하는 정도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삼각관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넷째, 세대간 융합-개별화(Intergenerational Fusion-Individuation)는 7문항으로 부모와 융합되거나 개별화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좀 더 개별화 된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융합된 것으로 평가한다.

Bray와 Harvey(1992)의 연구에서 대학 1,2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가족관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세대간 친밀 .75, 세대간 삼각관계

.66, 세대간 간섭 .56, 세대간 융합-개별화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세대간 간섭 .92, 세대간 친밀 .94, 세대간 삼각관계 .81, 세대간 융합-개별화 .61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부모 자아분화, 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었던 부·모 자아분화를 제외하고 아동 자아분화와 세대간 가족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 문제행동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와 아동 문제행동과의 관계

부·모·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부모의 자아분화와 아동의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분화와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성은 8개의 문제행동 하위요인과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15 \sim .54, p<.01$). 즉, 정서적 반응성이 낮을수록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위치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정서적 단절은 8개의 문제행동 하위요인과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22 \sim -.48, p<.01$). 즉,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타인과의 융합은 아동의 비행을 제외한 7개의 문제행동과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19 \sim -.39, p<.01$). 즉, 타인과의 융합이 낮을수록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와 아동의 문제행동도 부적인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 중 세대간 친밀은 8개의 문제행동 하위요인과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17 \sim -.38, p<.01$). 즉, 세대간 친밀이 높을수록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삼각관계도 아동의 8개의 문제행동 하위요인과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12 \sim -.28, p<.01$). 즉, 세대간 삼각관계가 낮을수록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융합-개별화는 아동의 문제행동 하위요인 중 위축을 제외한 7개와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09 \sim -.22, p<.01$). 즉, 세대간 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증상, 우울/불안,

<표 2> 부·모·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 아동 문제행동의 상관분석 (N=506)

	부 자아분화				모 자아분화				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				아동의 문제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R	IP	EC	FO	SUM	ER	IP	EC	FO	SUM	ER	IP	EC	FO	SUM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1																															
2	-.26**																														
3	-.15**	.54**																													
4	-.24**	.68**																													
5	-.27**	.81**	.33**																												
6	-.23**	.28**	.26**	.29**																											
7	-.18**	-.07	.11*	-.04	-.08																										
8	-.04	-.08	-.04	-.06	-.06	.06																									
9	-.02	-.02	.02	.02	.02	.02	.02																								
10	-.01	.10*	-.12**	.01	-.15**	-.09	.02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1	-.09	.03	-.02	-.01	.10*	-.12**	.01	-.15**	-.09	.02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2	-.03	-.03	-.02	-.01	.10*	-.05	.01	-.11**	-.08	-.02	-.02	-.01	.10*	-.05	.01	-.11**	-.08	-.02	-.02	-.06	-.01	-.03	-.04	-.03	-.04	-.01	-.03	-.02	.02	.02	
13	-.08	.00	.05	.02	.08	-.10*	.02	.09*	-.01	-.04	-.08	-.06	-.07	-.05	.01	-.09*	-.01	-.04	-.08	-.06	-.07	-.05	.01	-.09*	-.06	-.07	-.05	.01	-.09*	-.06	
14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5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6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7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8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19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0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1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2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3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4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5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6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7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8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29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30	-.08	-.09*	-.08	-.03	.09*	.04	.12**	.09*	-.01	.07	.03	-.02	-.01	.04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p<.05 **p<.01

ER : 정서적 반응성 IP : 나-위치 EC : 정서적 단절 FO : 타인과의 융합, SUM : 자아분화 총합 X1 : 세대간 친밀 X2 : 세대간 간섭 X3 : 세대간 감각관계 X4 : 세대간 융합-개별화 Y1 : 위축 Y2 : 신체증상 Y3 : 우울/불안 Y4 : 사회적미성숙 Y5 : 사고의 문제 Y6 : 주의집중의 문제 Y7 : 비행 Y8 : 공격성 Y9 : 내재화문제 Y10 : 외현화문제 Y11 : 총문제행동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중의 하나인 사회적 위축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단절($\beta=-.38,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21, p<.001$), 나-위치($\beta=-.12, p<.01$)의 순서로

〈표 3〉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표준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 종속변인	내재화 문제행동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아동 정서적 반응성	-.18	.15	-.07	-1.24	-.29	.16	-.11	-1.75	-1.90	.28	-.36	-6.88***
아동 나-위치	-.37	.13	-.12	-2.92**	-.12	.14	-.04	-.80	-.74	.24	-.11	-3.06**
아동 정서적 단절	-1.20	.17	-.38	-7.10***	-.20	.19	-.06	-1.04	-.99	.32	-.15	-3.08**
아동 타인과의 융합	-.03	.16	-.01	-.19	-.46	.18	-.15	-2.58**	-.38	.30	-.06	-1.28
세대간 친밀	-.82	.17	-.21	-4.88***	-.53	.19	-.13	-2.77**	-1.63	.32	-.20	-5.09***
세대간 간섭	.09	.11	.04	.87	.09	.12	.04	.75	.11	.21	.02	.53
세대간 삼각관계	-.15	.13	-.05	-.10	-.46	.15	-.14	-3.06**	.11	.25	-.09	-2.43*
세대간 융합-개별화	.05	.16	.01	.31	-.46	.18	-.12	-2.55*	-.49	.31	-.07	-1.61
R^2	.30				.18				.40			
Adjusted R^2	.29				.17				.39			
F	27.97; $p < .001$				14.08; $p < .001$				43.55;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이다.

또한, 아동의 신체증상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타인과의 융합($\beta = -.15, p < .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삼각관계($\beta = -.14, p < .01$), 세대간 친밀($\beta =$

$-.13, p < .01$), 세대간 융합-개별화($\beta = -.12, p < .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8%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우울/불안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

〈표 4〉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표준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 종속변인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공격성			
	b	SE	β	t	b	SE	β	t
아동 정서적 반응성	-.10	.11	-.05	-.79	-2.37	.32	-.43	-7.39***
아동 나-위치	-.04	.10	-.02	-.44	-.29	.28	-.04	-1.03
아동 정서적 단절	-.33	.13	-.15	-2.49*	-.32	.37	-.05	-.88
아동 타인과의 융합	.20	.12	.09	1.61	.71	.35	.11	2.03
세대간 친밀	-.49	.13	-.18	-3.67***	-.91	.37	-.11	-2.46*
세대간 간섭	.06	.09	.03	.67	.29	.24	.05	1.19
세대간 삼각관계	-.26	.10	-.11	-2.44*	-.66	.29	-.10	-2.26*
세대간 융합-개별화	-.28	.13	-.11	-2.26*	-.56	.35	-.07	-1.59
R^2	.12				.24			
Adjusted R^2	.11				.23			
F	8.89; $p < .001$				20.29;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에 대한 표준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아동 정서적 반응성	-.12	.14	-.05	-.85	-.52	.13	-.25	-4.00***	-.74	.18	-.25	-4.24***
아동 나-위치	-.29	.12	-.10	-2.34*	-.18	.12	-.07	-1.58	-.38	.15	-.10	-2.46*
아동 정서적 단절	-.91	.16	-.33	-5.56***	-.22	.15	-.08	-1.40	-.64	.20	-.17	-3.10**
아동 타인과의 융합	.04	.15	.02	.26	.10	.14	.04	.67	.11	.19	.03	.58
세대간 친밀	-.27	.16	-.08	-1.69	-.26	.15	-.08	-1.67	-.90	.20	-.20	-4.43***
세대간 간섭	.01	.11	.01	.13	-.02	.10	-.01	-.21	-.01	.13	-.00	-.04
세대간 삼각관계	-.05	.13	-.02	-.41	-.26	.12	-.10	-2.15*	-.04	.16	-.01	-.25
세대간 융합-개별화	-.09	.16	-.03	-.58	-.26	.15	-.08	-1.79	-.40	.19	-.10	-2.09*
R^2	.16				.15				.24			
Adjusted R^2	.14				.13				.22			
F	F= 11.99; p<.001				F= 10.92; p<.001				19.88; p<.001			

*p<.05 **p<.01 ***p<.001

적 반응성($\beta=-.36,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20, p<.001$), 정서적 단절($\beta=-.15, p<.01$), 나-위치($\beta=-.11, p<.01$), 세대간 삼각관계($\beta=-.09, p<.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0%이다.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비행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세대간 친밀($\beta=-.18,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단절($\beta=-.15, p<.001$), 세대간 삼각관계($\beta=-.11, p<.05$), 세대간 융합-개별화($\beta=-.11, p<.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2%이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beta=-.43,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11, p<.05$), 세대간 삼각관계($\beta=-.10, p<.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4%이다.

<표 5>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미성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단절($\beta=-.33,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위치($\beta=-.10, p<.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6%이다.

또한, 아동의 사고의 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beta=-.25,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삼각관계($\beta=-.10, p<.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5%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beta=-.25,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20, p<.001$), 정서적 단절($\beta=-.17, p<.01$), 세대간 융합-개별화($\beta=-.10, p<.05$), 나-위치($\beta=-.10, p<.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4%이다.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beta=-.26, p<.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22, p<.001$), 정서적 단절($\beta=-.22, p<.001$), 나-위치($\beta=-.11, p<.01$), 세대간 삼각관계($\beta=-.11, p<.0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이다.

〈표 6〉 내재화, 외현화, 총문제행동에 대한 표준 중다회귀 분석

독립변인	내재화				외현화				총문제행동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아동 정서적 반응성	-2.27	.45	-.26	-5.10***	-2.46	.39	-.37	-6.32***	-6.61	1.13	-.31	-5.88***
아동 나-위치	-1.18	.39	-.11	-3.02**	-.33	.34	-.04	-.98	-2.70	.99	-.10	-2.73**
아동 정서적 단절	-2.29	.52	-.22	-4.41***	-.66	.45	-.08	-1.45	-5.22	1.31	-.20	-3.98***
아동 타인과의 융합	-.90	.49	-.08	-1.76	.91	.42	.12	2.14*	.22	1.23	.01	.18
세대간 친밀	-2.81	.52	-.22	-5.45***	-1.40	.45	-.14	-3.10**	-6.24	1.31	-.20	-4.79***
세대간 간섭	.27	.33	.03	.81	.34	.29	.05	1.18	.86	.84	.04	1.02
세대간 삼각관계	-1.16	.41	-.11	-2.86**	-.92	.36	-.11	-2.58*	-3.10	1.03	-.12	-3.01**
세대간 융합-개별화	-.83	.49	-.07	-1.69	-.85	.43	-.09	-1.98*	-3.09	1.24	-.11	-2.49*
R^2	.41				.23				.38			
Adjusted R^2	.40				.22				.37			
F	44.43; $p < .001$				19.61; $p < .001$				39.04;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beta = -.37, p < .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 = -.14, p < .01$), 타인과의 융합($\beta = -.12, p < .05$) 세대간 삼각관계($\beta = -.11, p < .05$), 세대간 융합-개별화($\beta = -.09, p < .05$)의 순서로 나타났다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총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 정서적 반응성($\beta = -.31, p < .0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대간 친밀($\beta = -.20, p < .001$), 정서적 단절($\beta = -.20, p < .001$), 세대간 삼각관계($\beta = -.12, p < .01$), 세대간 융합-개별화($\beta = -.11, p < .05$), 나-위치($\beta = -.10, p < .0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8%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 모 자아분화, 아동 자아분화,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의 문제행동 역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분화수준이 자녀의 분화수준을 결정하며 자녀의 분화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어머니라고 한 Bowen(1988, 2005)의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계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 Tuason과 Friedlandle(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Tuason과 Friedlandle(2000)은 이러한 결과를 필리핀과 미국 백인의 문화적 차이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필리핀 문화에서는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타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융합은 개인주의나 자율성보다는 융합 그 자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뿌리가 된다. 따라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융합은 오히

려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며, 나-위치는 자신의 신념과 관계되기 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Enriquez, 1997; Tuason & Friedlander, 2000에서 재인용). 이것은 타인과의 융합을 미덕으로 여기고 우리(We-ness)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며 독립된 나-위치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로 보는 필리핀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문화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자아분화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서구 사회의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한 Bowen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문화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이선훈, 1998; 조은경, 2001; Skowron, 2004)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 자아분화와 자녀 자아분화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분화가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증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오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자아분화 척도가 외국의 척도를 기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정혜정 · 조은경, 2007). 따라서 앞으로의 자아분화 관련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 적합한 자아분화의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와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으로 세대간 친밀과 개별화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세대간 삼각관계가 낮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낮았다. Bowen은 개인의 증상이나 역기능에서 가족체계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간의 갈등으로 삼각관계의 희생양이 된 자녀는 정서적 투사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삼각관계는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그리고 총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y, Harvey와 Williamson(1987)은 세대간 친밀할수록, 세대간 개별화될수록 증상이 적다고 하였으며, Benson, Larson, Willson과 Demo(1993)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세대간 융합을 지각한 자녀들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Smith 외(1998)는 세대간 융합과 세대간 삼각관계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신체적 인지적으로 무능하며 대학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간 가족관계가 자녀의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족정서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 가족관계 중 세대간 간섭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어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부모-자녀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표면적 관계인 세대간 간섭보다는 세대간 친밀과 세대간 삼각관계, 세대간 융합-개별화와 같은 정서적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다회귀 분석결과 세대간 친밀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 문제행동에는 가족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에 있어 두 세대간의 정서적 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의 자아분화와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아동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owen(1978, 1988, 2005)에 의하면 자아분화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부적으로 관련되며, 분화가 낮은 사람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증상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Bowen의 가설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설이 아동에게도 성

립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증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국내외의 연구와(권미영, 1993; 김보현, 1999; 이해숙, 1992; 정미란, 1994; Peleg, 2004; Peleg, 2005; Skowron & Friedlander, 1998; Skowron, Homes, & Friedlander, 2003, Tusan & Fridlander, 2000) 일치한다. 따라서 자아분화는 심리적 증상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세대간 가족관계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 자아분화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기질 등 개인적 특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자아분화와 세대간 가족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자아분화는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중에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Bowen의 자아분화는 불안과 관련이 깊은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은 심리적 증상으로 자아분화가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성숙을 나타내는 자아분화가 개인 내면의 심리적 증상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더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서적 반응성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가장 높은 β 값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Skowron과 Friedlander(1998)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성과, 정서적 단절은 심리적 증상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Peleg(2004)가 12-13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

성이 아동의 불안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표현 지향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인 아동기의 특징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 및 부모와 같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행동에서도 정서적 반응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분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반응성을 아동 스스로가 조절하고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 중 세대간 친밀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아동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반응성이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을 제외하면 영향력이 다소 적었지만 세대간 친밀은 내재화 문제행동 중의 하나인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외현화 문제행동 중의 하나인 비행과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 문제행동 예방의 주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 상담과 부모교육에 있어 가족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을 고려하고 세대간 정서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정서적 반응성과 정서적 조절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문제 행동 자녀 접근에 있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라 심리적 접근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를 통해 부모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를 노출하기를 꺼리는 방어적 응답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모 모두 설문지를 해 올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이 연구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부모 가정에 속하는 아동과 그 부모는 제외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현(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심혜숙(1992). Murr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인간이해**, 13, 33-46.
- 김정택·심혜숙(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1, 31-45.
- 동아일보(2006. 4. 12). 초중고생 세 명중 한 명 정신건강문제. A12면.
- 법무부(2007).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1-30.
- 서병숙·정혜은(1994). 배우자 선택과 결혼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 1(12), 209-227.
-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2001). **청소년 자기 행동평가 척도(K-YSR)**.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이선혜(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적응에 대한 고찰 :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6(2), 151-176.
- 이혜숙(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조은경(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경(1999). 어머니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신문(2007. 1. 1). 학교폭력 3가지 조심하세요. K면.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rcher, S. L., & Waterman, A. S. (1988). Psychological individualism : Gender difference of gender neutrality?. *Human Development*, 31, 65-81.
- Benson, M. J., Larson, J. H.,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Bowen, M. (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pp.42-90). New York : Garden.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Bray, J. H. (1991). *PAFS :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manual*. Huston : Texas.

- Bray, J. H., & Harvey, D. M., & Williamson, D. S. (1987).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al : An evaluation of theory and measurement. *Psychotherapy, 24*, 516-528.
-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personal author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67-178.
- Davice,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Family Evaluation*](남순현 · 전영주 · 황영훈 역). 서울 : 학지사(원전은 1988에 출판).
- Larson, J. H.,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 A test of Bowenian therap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9-53.
- PD수첩(제작). (2006. 4. 11).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 인가?**. 서울 : MBC TV.
- Peleg, O. (2004). Differentiation and test anxie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7*(6), 645-662.
- Peleg, O. (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 167-183.
- Skowron, E. A.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personal adjustment, problem solving, and ethnic group belonging among persons of co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447-482.
- Skowron, E. A., & Fiedlander, M. L. (198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Skowron, E. A., Holmes, S. E., & Sabatelli R. M. (2003). Deconstructing differentiation : Self Regulation, interdependent relating, and well-being in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 111-129.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Smith, J. B., Ray, R. E., Wetchler, J. L., & Mihail, T. (1998). Level of fusion, triangulation and adjustment in family of college student with physical and cognitive disabilit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9-38.
- Tuason, M. T., & Friedlander, M. L. (2000). Do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 predict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 tests Bowen therapy in a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27-35.
- Wichstrom, L., & Holte, A. (1995). Fusion in the parent relationship of schizophrenia : Part of a symposium on family and schizophrenia. *Psychiatry, 58*, 28-43.
- Williamson, D. S. (1981). Personal authority via termin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hierarchical boundary : A new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41-452.
- Williamson, D. S. (1982). Personal authority in family experience via termin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hierarchical boundary : Part 3- Personal authority defined and the power of play in the change proc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309-323.